

지난 1일 새벽 4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서울행 고속버스가 출발하는 창구는 북적였다. 28석짜리 우등고속버스는 이날 빈 자리가 없었다. 두터운 시트사를 옆구리에 꿰찬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취업 준비생들이다. SPC 그룹의 채용 시험도 이날 열렸다. 말끔한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한 채 삼각 김밥을 급하게 먹고는 젊은이, 행여 구겨질까 조심스럽게 양복을 챙겨 들고 버스에 오르는 젊은 구직자들 모습도 눈에 띄었다.

고속버스 기사 이택영(52)씨는 “첫차를 타는 20대 승객 대부분은 취업 시험 보러 가는 준비생들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표정·옷 차림새만 봐도 취업 준비생인지도 꼭 짚어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새벽 상경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터미널측은 공무원 시험이라도 있는 날이면 5~10분 간격으로 임시 차까지 배정하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는데다, 젊은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갈만한 직장’이 없다는 광주·전남 취업시장 현실을 반영한 분위기가 묻어났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광주·전남 젊은이들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지역을 3분기 청년 고용률은 39.9%로 전국 평균(41.5%)보다 낮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센터 구인·구직·취업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구직자는 8만6200명인 반면, 업체의 구인 현황은 4만2399명에



힘겨운 취업上京... 힘내라 청년이여

불과했다.

그나마 구직자의 27.9%만이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1인 이상 사업체 20만개 조사 결과, 광주지역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49만원으로 서울(320만), 울산(295만2000원) 등에 비해 적었다.

“일 자리를 찾으려면 (광주·전남)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에 제조업을 둔 기업체가 손으로 짚을 정도로 부족하고 채용 인원도 적어 공대생들의 경우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업 준비생들의 하소연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이

**광주·전남 갈만한 직장 없고
기업 채용인원도 적어 타지로
“숙박비 부담이라도 줄여야죠”
새벽 상경에 알바로 비용 마련**

유를 짐작할만 하다.

몇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거나 몇 천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등 지자체의 ‘뽕구름 잡기식’ 숫자

놓음에 대한 취업현장 젊은이들의 부정적 분위기도 팽배하다. 구직자와 산업체를 연결해주는 채용 박람회 등의 기회도 많지 않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년간 고작 2차례의 취업지원사업만 펼쳤다. 중소기업들은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젊은층에서는 ‘갈만한 직장’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대화에서는 응시 인원, 난이도, 희망 기업 연봉 등의 단어가 빠지지 않았고 응시 횟수, 절박함 등의 분위기도 엿보였다. 다음해 2월 지역 사립대를 졸업한다는 김모(27)

씨는 “올 들어 벌써 3번째 상경”이라고 했다.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각오로 봤던 대기업 인·적성 검사를 벌써 세 번째 치르게 됐다고 했다.

서울행 왕복 버스요금만 5만2200원. 나이 먹도록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형편이다. 채용 시험 볼 때마다 하루 숙박 요금 5만5000원짜리 모텔은 부담이 크고, 여성의 경우 1만5000원짜리 짐질방은 위험해 꺼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친척·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는 것도 하루나 이틀 정도다. 한 번에 딱 붙는 것도 아닌데, 시험 응시 횟수를 알려주거나 ‘떨어졌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 몸 상태는 제쳐놓고 새벽 상경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이유다. 식비(1만2000원), 택시·지하철 요금 8300원 등까지 포함하면 ‘취업 시험’을 위해 하루 상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8만원 정도다. 취업 공부 외에 이같은 상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당 5만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많다.

취업정보포털 사업인이 지난해 취업 준비생 15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면접 한번 볼 때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10만4900원. 의상구입비가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통(40.7%) ▲화장 등 미용(6.8%) ▲식사(5.9%) ▲숙박(3.5%) 순이었고 응답자 중 27.6%(425명)는 비용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의 바람은 면접비를 주지 않아도 면접만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것이다. 광주·전남 취업준비생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글·사진=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학폭없는 학교 만들어요” 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상상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이 학교폭력 근절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유사의료행위 등 14곳 적발

전남도는 2일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목포시 등 5개 시 지역 소재 피부·미용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무신고 및 불법·유사 의료행위를 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업주 14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현행법상 피부·미용업소에서는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일부 영업주들이 불법 영업을 일삼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담합 통해 772억 공사 낙찰... 벌금은 고작 4000만원

남양건설 동북택 도수터널 공사 선고

담합 행위로 700억원대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동북택동 자연유해식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업체를 둘러리리 내세워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양건설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건설 측 대리인의 범정 진술과 검찰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면으로 7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남양건설은 조달청이 지난 2009년 발주한 772억 원 규모의 ‘동북택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부건설 측과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고 동부건설 측에 더 낮은 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게 해 공사를 732억여원에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목포 유흥업소서 주먹질... ‘주먹이 운다’ 출연자 구속

여중업원 감금 윤락업소 팔아넘겨

목포경찰청은 2일 경정 유흥업소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여중업원을 감금한 뒤 윤락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로 최모(2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해당업주 박모(70)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3명은 지난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박씨의 사주를 받고 목포시 하당 경정 업소 2곳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건강상 문제로 일을

(케이بل채널 프로그램)

그만두려는 여중업원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6차례에 걸쳐 감금한 뒤 2000만원을 받고 순천의 한 윤락업소에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최씨와 조씨의 휴대폰에 성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 지난달 12일 미성년자인 A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자 모델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구속된 최씨는 올해 1월 케이بل채널 XTM ‘주먹이 운다’에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교차로 진입문제 다투다 음주운전 들들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 진입문제를 놓고 개인택시 운전기와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음주사실이 들들 나 경찰서행.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성모(25)씨는 지난 1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흑석사거리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치인 0.10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교차로 우선진입 문제를 놓고 개인택시 운전기사(31)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술냄새 때문에 입건.

○성씨는 연행과정에서 우선지구대 유모(40) 경위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는데, 경찰은 “성씨의 행동이 과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가 6억 7천
(보 4천, 용 1억 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 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 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밀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 2천
할인→2억 8천

010-6832-9700

목포시 옹해동 전원주택매매

바닷가 5분
옹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2억 8천

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1억 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 1천만
(보 1천, 월 70만, 용 5천만)

062)527-7600

경매 무료 교육

11월초 상무지구

최고급 시설로 상무지구
중심 학원가에 오픈합니다!

기본반, 고급반, 실전반 평생최고위반 운영

경매 교육후 바로 경매 실전경험으로
수익발생할수 있음!!

경매 교육에서 낙찰, 건축,
리모델링 판매까지 도와드립니다!



한국경매학원(상무점) 062)382-5500